

# 중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

2019. 12. 02.(월) /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비즈니스센터

## □ [정책] 국무원, 자유무역시범구 '증조분리' 관련 통지 발표

- 11월 15일, 국무원(国务院)이 <자유무역시범구 '증조분리' 개혁 적용시행 관련 통지(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开展“证照分离”改革全覆盖试点的通知)>를 발표하고 상해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'증조분리' 개혁을 전국의 각 자유무역시범구 범위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함.
- 이는 영업집조(사업자등록증)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빠른 시일에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상해·광둥·천진·복건 등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행될 예정임. 이번 통지에 선정된 발급절차 간소화 관련 경영허가사항 리스트에는 총 523개 항목이 들어있으며, 이 중에는 TV영상 방송업무 심사·TV프로그램 제작경영회사 설립 심사 등 방송관련 10개 항목이 포함됨.

※ 증조분리(证照分离) : 공상부처가 발급하는 영업집조와 각 분야 관리부처가 발급하는 영업허가증의 심사제도 개혁.

## □ [게임] 추쇼우, 텐센트와 게임 라이브방송 관련협약 체결

- 11월 27일, 모바일 게임라이브방송 플랫폼 추쇼우(触手)는 텐센트(腾讯)와 게임라이브방송 관련협약을 체결함. 이는 텐센트의 게임 파생콘텐츠 관련 첫 번째 협약으로 텐센트 게임콘텐츠의 전체화면을 기초로 라이브방송 진행이 가능해짐.

## □ [미디어] 올해 현재까지 중국내 1,884개 영상회사 폐쇄

- 중국의 기업정보 플랫폼 텐엔차(天眼查)의 데이터에 따르면, 올해 현재까지 1,884개 영상업계 기업이 말소(注销)·취소(吊销)·청산(清算)·폐업(停业)됨. 일부 관련업계에서는 중국 영상업계가 과도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향후 1~2년 내에 중국 전역의 더 많은 영상회사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## □ [미디어] 광선미디어 시가총액 300억 위안 초과

- 11월 19일, 중국 주식시장 마감 후 광선미디어(光线传媒)의 시가총액이 300억 위안(약 5조 355억 원)을 넘어섬. 이는 완다영화(万达电影)의 시가총액인 297억 4,000만 위안(약 4조 9,918억 원)보다 높아 업계의 1위 자리를 차지함.

●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●

- 미국 비즈니스센터(LA) 김철민 센터장 : +1-323-935-2070 / cmkim@kocca.kr
- 중국 비즈니스센터(북경) 김상현 센터장 : +86-10-6501-9971 / willbe@kocca.kr
- 중국 비즈니스센터(심천) 남궁영준 센터장 : +86-755-2692-77971 / pinoky14@kocca.kr
- 일본 비즈니스센터(동경) 황선혜 센터장 : +81-3-5363-4511 / hwang216@kocca.kr
-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(자카르타) 김남걸 센터장 : +62-21-2256-2396 / girl94@kocca.kr
- 중동마케터(UAE 아부다비) 박상욱 과장 : +971-2-491-7227 / swpark@kocca.kr
- 베트남마케터(하노이) 홍정용 부장 : +84-39-226-4093 / hongiy@kocca.kr

발행인 김영준

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

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(빛가람동 351)

전화 1566-1114

www.kocca.kr